

# “오로지 승리...죽기 살기로 러시아 잡겠다”

## 내일 운명의 날...대국전사 3인 출사표

### 기성용 “세트피스 기회 오면 반드시 살리겠다”

홍명보(광주) “중원의 핵”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키만큼은 자신있다”며 세트피스 득점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기성용은 16일 오전 5시(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마투그로수 연방 대학(UFMT)에서 치러진 공식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세트피스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세트피스는 약팀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득점 기회다. 한국의 월드컵 대국전사 3인 중 유일하게 기성용은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올렸던 선수다.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허정무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까지 7회 연속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다. 이 때문에 ‘패스 마스터’로 불리는 기성용의 오른발에 기대를 거는 축구팬들이 많다.

그러나 기성용이 지난 1년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세트피스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홍명보는 11월 스위스전에서 세트피스로 한 골을 넣었을 뿐이다. 당시 기성용의 코너킥을 홍정호가 헤딩골로 연결했다.

기성용은 “세트피스는 내가 잘 차고, 받는 동료의 움직임이 좋다고 해서 꼭 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운도 따라야 한다”며 러시아전에서 세트피스로 골을 넣고 싶다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기성용은 전날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일본의 경기를 TV로 관전한 소감도 전했다.

그는 “코트디부아르가 좋은 선수가 많았고 피지컬도 좋았다”라면서 “일본이 나를 좋은 경기를 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러시아전 필승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 손흥민 “쿨하게 침착하게... 꼭 승리 하겠다”

홍명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격수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이 더 치열해졌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오전 5시 브라질 쿠이아바의 마투그로수 연방 대학(UFMT)에서 치러진 공식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전 준비를 죽기살기로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질풍같은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이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다.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거침없음’이다.

그라운드에서처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손흥민이지만 이날 “죽기살기로 하겠다”는 발언에서는 승리를 향한 욕심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이 러시아 공략법으로 ‘측면’을 강조한 탓에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속 축구를 구사하는 러시아를 꺾기 위해 홍명보는 상대 역속 차단에 이은 측면 돌파를 집중적으로 연마하고 있다.

오른쪽의 이정용(분전)과 함께 왼쪽의 손흥민을 주요 공격 카드로 지목한 셈이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측면 돌파를 선호하는) 내 스타일도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반드시 러시아전에서 반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미 ‘월드 스타’인 이지만 어린 나이에 맞은 첫 번째 월드컵인 만큼 떨릴 법도 하다.

그러나 손흥민은 “월드컵이 어려운 대회지만 최대한 쿨하게, 침착하게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 박주영 “결정력 높여... 오직 이기는 게 나의 각오”

“저의 각오요? 러시아전에서 이기는 것이죠!” 홍명보의 원톱 스트라이커 박주영(29·아스널)이 러시아와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박주영은 16일(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의 마투그로수 연방 대학(UFMT) 경기장에서 열린 비공개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전에서 이기는 게 나의 각오”라고 단정히 말했다.

홍명보의 핵심 득점원인 박주영은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러시아전을 앞두고 득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있다는 게 박주영의 설명이다.

“슈팅의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골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박주영은 “팀 훈련이 끝나

면 나머지 추가로 슈팅 훈련으로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영은 특히 공격수의 수비 부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수비는 물론 공격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헌신적인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박주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두 대회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박주영은 그러나 욕심보다는 팀플레이에 신경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팀에 킥이 좋은 선수가 많아서 제가 전담을 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훈련도 많이 했고 좋은 상황이 생기면 득점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조 한국-러시아 전력비교

6.18(수) 오전 7시

한국: 6.18(수) 오전 7시, 아시아 예선 A조 2위 (8승3무3패) 27골/11실점, 월드컵 전체 28경기 5승 8무 15패(28골/61실점)

러시아: 유럽 예선 F조 1위 (7승1무2패) 20골/5실점, 월드컵 전체 37경기 17승 6무 14패(64골/44실점)

4-2-3-1 예상포메이션 vs 4-3-3 예상포메이션

역대전적: 한국 1승, 러시아 1승, 무승부 1경기, 골: 한국 2골, 러시아 2골

FIFA 랭킹: 한국 57, 러시아 19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장애인 성공취업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만 18~64세 이하의 구직 장애인  
단, 일반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조건부수급자는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

**01** 3주~1개월 → 최대 25만원 지급  
구직의욕 제고, 경로설정  
●취업상담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02** 최대 6개월 → 월 최대 28만 4천원 지급  
직업능력증진, 일 경험  
●내일배움카드훈련(300만원 한도) ●공단자체 직업훈련 등

**03** 최대 3개월 → 취업성공시 최대 100만원 지급  
집중 취업알선  
●구인처 탐색 및 구인정보 제공 ●동행연접 등

신청 문의: 전화 (062)448-1114~5 팩스 (062)448-1144 E-mail hjung@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